

아주 환한 날들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강사가 말했다. 강의실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비가 와 결석생이 생긴 탓도 있었지만 원래 수강생이 적은 수업이었다. 강의실엔 그녀까지 여섯 명이 앉아 있을 뿐이었는데, 모두 강사보다 나이가 많았다. 평생교육원에 신설된 수필 쓰기 수업을 같이 듣는 일곱 명의 수강생 중 오십대 주부 한 명—일찍 결혼해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갔다고 했다—을 제외하면 나머지 여섯 명은 모두 그녀처럼 일흔이 넘는 노인들이었다. “그것도 전부 다 영감탱이들이야.” 얼마 전 그녀의 집에 찾아온 사위에게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렇게 말했을 때 사위는 무엇이 웃기는지 “장모님은 늘 재미있으세요”라며 웃었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소설집 한 권과 산문집 한 권을 출간했다는 강사는 체구가 작았고, 거의 소녀처

럼 보였다. “제가 강의를 처음 해보는데,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뻘이시니 긴장이 되네요.” 수업이 시작되던 한 달 전, 강사는 수강생이 주로 노인들인 데 당혹한 듯 수업 소개를 하다가 몇 번이나 말을 더듬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쓰셨네요.”

짐을 챙겨 맨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는데 강사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쓸 말이 안 떠올라세요.”

딸만큼 어린 강사는 그녀의 대답에 다음엔 꼭 쓸 이야기가 떠오를 거라고 말하고는 웃었다. 과연 그럴까. 그녀는 의심쩍었지만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귀찮아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뒤풀이는 오늘도 안 가세요?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강사와 같이 강의실을 빠져나오자 건물 입구 쪽에 서 있던 수강생 무리 중 오십대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서며 말을 붙였다.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근처의 백반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는 듯했다.

“집에 가 봐야 해요.”

“혼자 사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여자는 아쉬운 기색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요.”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그걸 말할 필요는 없었다.

수필 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그녀는 솔직히 돈이 아까웠다. 강사는 그녀가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다. 나처럼 번듯한 어른이 대체 왜? 그런 오해를 살 바엔 강사에게 사실은 글쓰는 일엔 눈곱만큼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말해주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수필 쓰기 수업이 수요일 오후 세시에 개설되지만 않았더라도 그녀는 그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섯 달 전에는 같은 시간대에 건강 수지침 수업이 열려 다른 노인들과 수지침과 압진봉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다. 일 년 전에는 여행 영어 회화 수업에서 ‘여기 티켓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들을, 그보다 더 전에는 생활 인터넷 수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물건을 사고 승차권 같은 걸 예매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수요일 세시에 개설된 수업만을 듣는 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죽고 홀로 지켜오던 과일가게를 체력이 부쳐 육 년 전 아예 접은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일과를 아주 정교하게 짜냈다. 매일 정해진 일정대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청소를 했고—월요일 오전엔 화장실, 화요일엔 베란다, 수요일엔 냉장고 이런 식으로—점심을 먹고 나면 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외출을 했다. 동네 슈퍼에서 할인 품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팽이버섯 네 봉지 1000원, 수미감자 한 봉지 1250원, 돈앞다리 한 근 6000원—월요일 오후엔 장을 보러 갔고, 화요일엔 상가 안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했다. 정해놓은 시간의 외출이 끝나면 곧장 집으

로 돌아와 매일 밤 끓여두는 결명자차를 한 잔 마신 뒤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다음엔 천변에 나가 일만 보씩 걸었고, 집에 돌아와 연속극을 봤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예능방송을 봤는데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이나 옛날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딸과 통화를 하며 짧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거는 쪽은 주로 그녀였는데, 다섯 번 중 한 번꼴로 딸이 걸어들 때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종종 안쓰러워했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였다. 남편이 죽은 이후 그녀는 화장실이 막히면 배관공을 부르고, 바퀴가 나오면 슬리퍼로 죽이고, 직접 구입한 실내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형광등의 전구를 갈아끼우며 살아왔다. 그녀는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간 자부심을 느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누군가를 뒤통다끼리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귀찮은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고,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는 이유로—머리가 어떠냐고요? 돈이 아깝네요. 자르기 전이 더 나았는데—뜻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 일도 없었다. 솔직한 건 그녀의 천성이었지만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대하기 어려워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서툴렀는데 그건 어린 시절 그녀가 겪었던 일들 때문일지도 몰랐다. 서른이 다 된 나이에 돌봐야 할 동생들이 주렁주렁 달린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그녀의 오빠와 남동생은 남편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처럼 굴곤 했다. 맞선 자리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했던 말—아, 조금 걸으면 안 될까요?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요—을 듣고는 더욱 그랬다. 그게 그렇게 고마워할
일인가? 남편은 선량한 편이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건 밥을 차
려줄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
는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마침내 찾아온 평화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평생
동안 장사를 하느라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아늑했고, 그건 평생교육원에서 돌아와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오후의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 위에 넓게 퍼지는
걸 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평온하고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햇빛 사이로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정성껏 가꾼 나리꽃의 망
울이 조금 벌어져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
섰다.

“드디어 꽃이 피었네.”

그녀가 소리 내어 말했고, 그러자 날카로운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실 한구석에 세워둔 새장 속의 앵무새가 내는 소리
였다. 배 부분이 노랑고 등과 날개가 연두색인 작은 앵무새.

“아, 시끄러워.”

그녀가 한숨을 쉬듯 말했다. 매번 사라져 있길 바랐지만 그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사흘 전 앵무새를 가져온 건 사위였다.

“오랜만에 장모님이 뵙고 싶어서요.”

명절이나 어버이날도 아닌데 누군가 집에 찾아온 건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의 일이라 그녀는 허둥졌다. 어깨가 좁고 체격이 웅송그린 듯 왜소한 사위는 그녀가 그러거나 말거나 거실에 앉아 직장 생활과 새로 이사한 서울 근교의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서랑 애들은?”

“집사람은 아이들 데리고 도예 체험하러 갔어요.”

그녀의 딸과 사위 사이엔 아이가 둘 있는데, 인서는 둘째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육아휴직중이었다. 사위는 혼자 온 걸 변명이라도 하듯 학교에서 아이들 숙제로 요구하는 체험 활동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녀의 정신은 온통 사위가 가져온 새장에 팔려 있었다. 새장 속에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녀가 앵무새를 실제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건 웬 앵무새인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러자 사위는 다소 곤란하다는 듯 쭈뼛대더니 말했다.

“아, 이거요. 아이들이 크니까 자꾸 동물을 기르고 싶다 해서요.”

“그럴 때지. 인서도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사와서 닭이 될 때까지 기르고 그랬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면 그녀를 향해 돌진하던 닭들이 떠올랐다. 나무로 된 사과 궤짝 속에서 기르던 닭들. 그 당시 그녀의

가족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축 빌라에 살았다. 닭
똥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 곤란한데 인서가 너무 애지
중지해 큰 골칫거리였던 닭들.

“애들은 개나 고양이를 사달라 하고 집사람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개든 고양이든 돌볼 여력은 없다고 단호해서요.”

“그래서 앵무새를 산 게로군.”

그녀는 이제 사정을 다 이해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개나 고양이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금붕어나 햄스터 같은 걸 사주
는 건 흔한 일이었다. 앵무새라고 안 될 건 없지. 그리고 관심이
없어진 앵무새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화제를 바꾸려는데 사위가
느닷없이 말했다.

“장모님, 사실은 장모님께 이 앵무새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
려고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사위가 하는 말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좋아할 줄 알고 앵무새를 기껏 샀는데 애들이 만지다가 쪼이
고는 무섭다고 기겁을 해서요. 그런데 인서는 키우기로 결정하고
데려왔으니 책임감 없이 버릴 순 없다고 난리고.”

사위는 그녀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버릴 수는 없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맡아?”

“딱 한 달만요. 그때까지 애들이 앵무새랑 살 수 있도록 인서랑
제가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앵무새 카
페 같은 데도 데려가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다른 주인을

찾아볼게요. 딱 한 달만 부탁드립니다.”

사위가 말했다.

“자네 어머니는 어쩔고?”

“저희 어머니는 애들 봐주시느라 바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보다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더 적적하실 테고요.”

그녀는 사실 조금도 적적하지 않았다. 적적하다니, 대체 왜? 결명자차를 마신 컵을 씻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조금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어. 새장 속에서 앵무새는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게 울어댔고, 그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후회했다. 인서만 아니었다면, 결코, 결단코 그녀가 앵무새를 떠맡을 일은 없었다. 하필 그때 어린 인서가 “엄마, 닭들 다 어쩔어?” 하고 울먹이던 얼굴이 떠오르지만 앓았더라면. 황토 찜질팩을 허리에 댄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새장 안의 물그릇과 사료 그릇을 채워주지 않은 게 생각나 허둥지둥 일어나며 그녀는 또 한번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에 다녀왔더니 닭이 없어졌다며 목놓아 울다 “난, 엄마가 진짜 싫어”라고 말하던 아이의 얼굴은 떠올라버렸고, 그녀는 얼떨결에 사위에게 “한 달이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장마가 늦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옥수수를 써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매일 하나씩 데워 먹었고, 무농약으로 키웠다는 열무를 두 단 사다 물김치를 만들어 국수를 말아 먹었다. 초파리들이 수시로 생겨서 꼭 차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내다버리기 위해 집밖으로 평소보다 더 자주 나가야만 하는 계절이

었다. 앵무새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되어가도록 딸이 전화 한번 하지 않는 게 꽤 씁쓸해 그 주 토요일에는 그녀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럭저럭 지내죠. 엄마는요?”

“나도 그렇지 뭐.”

몇 살 때부터 딸이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애들도 잘 있지?”

“잘 있죠.”

딸의 짧막한 답을 듣자 갑자기 섭섭함이 밀려왔고, 그녀는 콧속고 싶어졌다. 지난 주말에 딸이 같이 오지 않고 사위만 보낸 것도 틀림없이 엄마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딸은 그녀에게 뭔가 부탁해야 할 때는 언제나 사위를 시켰다. 딸이 그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게 열세 살 때부터였는지 열다섯 살 때부터였는지 그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그즈음부터였을지도 몰랐다.

언젠가부터 딸과 통화를 하고 나면 그녀는 몸 쓰는 일을 찾아야 했다. 오이를 10킬로그램씩 사다가 오이지를 담그거나 배란다 화분들을 싹 다 분갈이했고, 그러지 않으면 찬장의 냄비들을 모조리 꺼내어 베이킹소다로 박박 닦는 식이었다. 마음이 심란해지면 몸을 쓰는 건 장사할 때부터 그녀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 매상이 앞집 과일가게보다 떨어진 날이나 진상 손님을 만나 목청 높여 싸운 날이면 그녀는 락스를 물에 풀어다가 가게의 선반과 소

쿠리들을 닦았다. 그럴 때면 남편은 뭘 그런 일로 속을 썩느냐며
 혀를 찼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녀는 더욱 부아가 치밀었다. 남편
 은 결혼 전부터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과일을 팔았으면서도 다세
 대주택 밀집 지역의 재래시장에서는 살 과일을 정해놓고 찾아오
 는 손님보다는 채소를 사러 나왔다가 썩은 과일이 눈에 띄면 덤처
 럼 한두 개 집어가는 손님이 더 많다는 것도 끝내 모르는 사람이
 었다.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는 최상품의 망고나 멜론을 갖다놓기
 보다는 십원이라도 더 싼 사과나 포도를 떼어 와야 이익이 남는
 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건 그녀였다. 가게 안쪽의 과일까지 팔
 기 위해선 계산대를 매장 가장 깊은 곳에 놓아야 한다는 걸 생각
 해낸 것도. 늘 선비처럼 뒤로 한 발 물러서던 남편 대신 그녀가
 건물주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십원, 이십원을 흥정하
 며 가게를 키웠다. 다른 사람이 하는 야채가게 옆에 조그맣게 매
 대 하나를 빌려 과일을 팔던 데서 시작해 간판을 내건 과일가게
 를 차리기까지 꼬박 칠 년이 걸렸다. 그 가게에서 번 돈으로 그녀
 는 집을 샀고, 딸아이를 대학에 보냈다. 새벽마다 과일 상자를 옮
 기느라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수술받은 무릎이 쭈
 졌지만 딸이 대학에 붙었을 때는 너무 기뻐 파스를 붙인 채로 가
 게 안에서 콧노래를 불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천변에 나가는 대신 수필을 쓰기 위해 식탁
 에 앉았다. 계속 아무것도 안 써 가는 게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솔직히는 그날따라 주말 천변에 나가기 싫기 때문이었다. 주말

에는 천변에 가족이나 연인들이 너무 많았다. 그녀가 정해놓은 일정을 어기는 건 육 년 만에 거의 처음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친 채 턱을 괴고 앉아 있었고, 앵무새가 부리로 새장을 툭툭 건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식탁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뭘 써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수업시간에 강사는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해주었고, 수강생들에게 읽고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녀는 강사가 추천해준 책을 모두 읽었는데 어떤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어떤 것들은 왜인지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에 들었다. 그다음에 수강생들은 자유 주제로 한 편씩 써 간 수필을 돌아가면서 읽고 의견을 나눴다. 그녀를 뺀 다른 수강생들은 뭔가를 잘도 적어 왔는데 대부분 어린 시절 눈갈사탕을 훔쳤던 일이나, 종로3가 창녀촌을 처음 지나가봤을 때의 경험 같은 것들이었다.

여름 저녁이라 창문을 열어놓아서 옆집에서 이웃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거실에 있는 앵무새가 자지러지듯 소리를 질렀다. 앵무새를 맡게 된 이후 그녀의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위가 놓고 간 사료를 일러준 대로 담아주면 앵무새는 눈 깜짝할 새에 밥그릇을 엮었고 때때로 가슴팍의 깃털을 뽑아놓기도 했다. 그 바람에 새장 주변은 치위도 치위도 곡식이나 깃털로 너저분했다. 그녀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앵무새가 툭하면 비명을 지른다는 사실이었다. 앵무새가 비명을 지를 때면 그녀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늦은 시간 텔레비전이라도 켜면 새장 안에서 졸고 있던 앵무새가 잠에서 깨

어나 그 소리에 질 수 없다는 듯 더욱 악을 썼는데 그러면 넌더리가 났다. 그녀는 리모컨을 찾아 텔레비전 볼륨을 높일 때마다 귀머거리 노인네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다시 수요일이 되어 그녀는 수필 쓰기 수업에 갔다. 사흘 동안 고민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쓰지 못해서 결국엔 빈손으로 갔다. 강사가 성의 없다고 오해할까봐 남의 글에 대해 돌아가며 한 마디씩 이야기할 때는 그녀도 의견을 냈다. 그러고도 마음이 찢찢해 수업이 끝난 후 모든 수강생이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강사에게 “써보려 하긴 했는데 정말 쓸 말이 안 떠올랐어요”라고 말했다.

“괜찮아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수강생들은 벌써 뒤풀이에 갔는지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와 강사는 같이 건물을 빠져나와 나란히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바로 옆에서 본 강사의 얼굴은 그녀의 딸처럼, 더이상 아주 젊지는 않지만 아직은 삶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초조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선생님은 엄마랑 사이가 좋아요?”

강사는 그녀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평범한 것 같은데요.”

평범이라. 마침 신호가 바뀌었고, 각자 길을 건넜다.

앵무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그 주 금요일이었다. 먹이를 주어도 도통 줄지가 않고 새장 안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앵무

새가 가슴팍의 깃털을 엉망으로 뽑아놓은 채 꼼짝도 않고 즐기만 했다. 영 이상해 그녀는 다음날 아침 동네 동물병원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전화를 걸었다. 앵무새의 상태에 대해 전해들은 수의사는 앵무새가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지만 자기네 병원에서는 새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니, 앵무새도 동물인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인터넷을 한참 더 검색한 후 사십 분이나 걸리는 동물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야만 했다. 동물병원의 문을 열자마자 개들이 요란하게 짖었다. 이십 분 정도 대기실에서 기다린 끝에 만난 젊은 의사는 앵무새를 길러온 방식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말투는 정중하지만 그가 비난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아챘다. “앵무새는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새장 밖에 꺼내주셔야 해요. 놀아도 주셔야 하고요.”

“놀아주라고요?” 그녀가 물었다.

“안 그러면 외로워서 죽어요.”

죽는다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딸의 얼굴이 그녀의 눈에 선했다. 죽더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되지.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돋보기를 찾아 끼고 앵무새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앵무새 키우는 법, 앵무새랑은 어떻게 놀까. 앵무새 발톱 관리법 같은 것들을. 생수보다는 수돗물이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 좋다거나 간식을 주 2~3회 정도 주는 게 적당하다는 걸 그녀는 그런 식으로 배웠다. 이제 그녀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물과 사료를 갈아주었고 한 시간마다 새장을 열어 새가 거실 바닥을 걸어다닐 수 있게 해줬다. 새는 이십 분마다 한 번씩 똥을 싸냈으므로 새를 꺼내놓고 나면 휴지를 들고 다니며 새가 지나간 자리를 닦아야 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앵무새가 아직 날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조그만 앵무새는 놀랄 만큼 재빨랐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다음 주 평생교육원에 갔을 때 강사가 그녀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극성스러운 손주가 생겼거든요.”

모든 일은 고역이었다. 일주일 만에 살이 3킬로그램이나 빠졌고, 초저녁만 되어도 잠이 쏟아졌다. 거실 바닥 전체엔 온통 곡식의 껍질과 노란 솜털이 나뒹굴어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기를 돌려야 했고, 여름이라 거실에 깔아둔 돗자리며 잠깐 바닥에 내려놓았던 돋보기의 안경테와 리모컨 버튼이 부리에 쏘여 너털너털해졌다. 몇 번이고 그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새를 데려가라고 말하는 상상을 했다. 정말로 걸지는 않았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자 믿기 힘든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밖으로 꺼내주려고 새장 앞에 다가서면 햇대에 앉아 있던 새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가웃한다는 걸 알아챘는데 그게 제법 귀엽게 보였다. 가끔은 머리를 들이밀기도 했다. 머리를 쓰다듬어달라는 뜻이라

는 걸 눈치채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개도 고양이도 아닌 주제에. 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 조그만 정수리를 만져줬다. 그러면 새가 그녀의 손바닥 가장 움푹한 곳에 머리를 비벼왔고, 그 감촉이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돛자리가 깔린 거실 바닥에 누운 채 책을 보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앵무새가 그녀의 배 위에 올라와 있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새장을 분명히 잠갔는데, 앵무새가 스스로 새장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일 텐데 그 사실이 잘 믿기지는 않았다. 큰일날 뻔했잖아. 자칫하면 깔아뭉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새는 그저 배 위에서 기분 좋게 졸고 있을 뿐이었다. 작은 털실 뭉치처럼 고개를 파묻고 몸을 웅크린 채.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그녀가 누군가를 해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는 것처럼.

“장모님, 죄송한데요, 한 달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약속한 한 달보다 한 주 더 늦게 사위가 전화를 걸어와—딸이 아니라 또 사위였다!—우물쭈물하며 말했을 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한 달 정도는 더 말을 수 있어.”

그녀는 인터넷으로 새장을 새로 구입했고—사위가 가져온 새장은 조금 커다란 이동장으로 앵무새가 살기엔 너무 비좁다는 걸 많은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됐다—해바라기씨와 사과를 간식으로 앵무새에게 주었으며, 앵무새용 공을 사다가 놀아주었

다. 목욕을 좋아하는 앵무새를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커다란 그릇에 물을 받아주었고, 목욕을 하고 나면 감기에 들지 않도록 드라이어로 꼼꼼히 말려주었다.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앵무새 카페에 데려가면 좋다는 이야기를 읽고는 주소를 검색해두었지만, 그곳에서 전염병에 걸려오는 경우도 많다는 글을 보고는 데려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했다.

녹음이 눈부신 계절이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낮엔 찌는 듯이 무더웠지만 저녁이 되면 천변은 아직 서늘해서 사람들은 해질녘에 산책을 나섰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 역시 설거지를 마친 후 천변으로 나갔다. 포장된 산책로 한쪽에는 보랏빛 쑥부쟁이가 여기저기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고, 하천을 따라 무성히 난 물풀 사이로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주민들을 위해 산책로에 마련된 운동기구와 벤치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다. 연인들, 노부부, 유아차를 밀고 거니는 사람들이 그녀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싶어졌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걷는데 집에 있을 앵무새가 떠올랐다. 외출했다 들어오면 꺼내달라고 햇대 위에서 부산히 왔다갔다하며 재촉하는 앵무새. 손가락을 내밀면 양증맞은 발로 검지와 중지 사이를 계단처럼 걷고, 소파에 앉아 연속극을 보고 있노라면 그녀의 옆에 오겠다며 오르지도 못하는 소파 위로 기어오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앵무새. 며칠 후, 그녀는 앵무새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인

터넷에서 검색한 바에 따르면 하네스를 채워 산책을 시키는 방법과 새장에 넣은 채 산책을 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네스를 채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휴대하기 좋은 초소형 이동장을 구입하는 쪽을 택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새가 놀라지 않도록 이동장의 삼면을 수건으로 덮고 천변을 걸었다. 유아차를 밀거나 개를 하네스로 묶고 걷는 사람들과 나란히 걷는 기분이 썩 좋았다. 그렇게 걷다보면 앵무새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고, 신나서 이따금씩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고 앵무새와 걷는 그녀를 발견한 뒤 신기한 듯 킁킁대며 지나갔다. 앵무새 산책시키는 할망구는 처음 보나보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보고 웃을 때면 어릴 적 그녀는 숨고만 싶었다. 스스로가 이 세상과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나온 부스러기처럼 느껴졌으니까. 어렸을 때 그녀는 강진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훗날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애들을 다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오빠는 장남이니까 보낼 수 없었고, 남동생은 아직 엄마 손을 타야 하는 나이라 데리고 있어야만 했다고. 그녀는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 집에서 백부네 식구들과 살았다. 어릴 적 생각만 하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놀림받던 일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녀가 서울말을 쓰고, 무엇보다 얼굴에 움푹 팬 수두 흉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백모는 그녀가 굵지 말랬는데 너무 굵어 그렇게 흉이 졌다고 했다. 수두는 사촌 언니들과 그녀가 동시에 걸렸지만 흉은 그녀에게만 남았다. 옆집의 춘식이 삼촌은 그

녀가 처음으로 사랑한 남자였다. 아이들이 놀리면 혼내주고 수두 자국이 있어도 예쁘다고 그녀에게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달을 봐봐, 옥미야. 달도 곁이 움푹 패어 있지만 저렇게 빛나고 아름답잖니. 춘식이 삼촌은 여름에 친구들과 무등산에 놀러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앵무새와 같이 천변을 따라 걷다보면 이상하게 가마득히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자꾸만 그녀를 찾아왔다. 이튿날 산책할 때는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점선이 생각이 났다. 얼굴이 까맣고 보조개가 귀여웠던 점선이. 말린 낙엽 뒤에 편지를 써서 건네주던 점선이. 점선이는 하숙집 딸이라 그 집에 놀러가면 언제나 대학생 오빠들이 있었다. 난생처음 그녀와 점선이를 동대문에 생긴 실내 아이스링크에 데려간 것도 그 오빠들이었다. 기습이 벽차오를 만큼 넓고 웅장했던 아이스링크. 그곳에서는 모두가 추위 따윈 아랑곳 않은 채 얼음 위를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졌다.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던 몸들. 땀에 젖은 채 겁없이 내달리던 젊음. 영원할 것 같던 그 시절도 결국엔 다 사라졌다.

딸 또래의 여자가 열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인서가 5학년인가, 6학년이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잠을 자지 않고 그녀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더니 물었다.

“엄마, 다음주 운동회 날에만 가게 쉬고 학교에 와주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하루도 쉴 수가 없었지, 하루를

쉬면 과일이 다 몽개져버리고, 그러면 피아노 학원비를 내줄 수가 없는데. 딸아이와 균열이 생긴 건 그때였을까? 돌이켜보면 딸아이의 마음이 멀어질 만한 순간은 많았다. 녹초가 되어 자고 있는데 딸아이가 깨우면 그녀는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과일 트럭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빠라는 경비원과 핏대를 높여가며 싸우는 걸 본 딸이 그녀더러 창피하다고 말했을 때는 그녀도 너무 창피하고 분해 뺨을 때렸다.

그녀의 아이, 엄마 너무 창피해, 엄마는 왜 그렇게 무식해, 했던 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그녀는 혹시라도 딸이 잘못될까 봐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났던가. 산부인과로 딸을 보러 갔을 때는 얼굴의 실핏줄이 다 터진 딸이 아빠가 있었으면 좋아했을 거라 말하며 울어 그녀도 눈물이 절끔 났다. 남편은 대장암이었다. 똥이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하도 그래서 변비약 정도는 알아서 사 먹으라고 남편에게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 내시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미 암이 커져 있었다. 남편이 죽고 일 년 만에 태어난 손녀딸은 사위를 꼭 닮았고, 삼 년 만에 태어난 손자는 딸을 빼닮았다. 아이들은 손을 가누지도 못하더니 금세 손가락을 들어 그녀를 가리켰고, 눈 깜짝할 새 그녀가 뺨을 갓다대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뺨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던 딸처럼. 그녀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지만 아이를 매일 돌보고 매일 저녁 딸과 밥을 같이 먹는 건 그녀가 아니라 딸의 시어머니였다. 딸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아이를 맡아달라 부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이 청명해 그녀는 늘 돌아오는 지점을 지나쳐 조금 더 걸었다. 한참을 걷다보니 어느새 감파래진 하늘 위로 둥글고 새하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수술을 두 번이나 한 무릎이 아파와 그녀는 벤치를 찾아 앉았다. 그녀 앞을 지날 때마다 크고 작은 개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거나, 반갑다는 듯이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사나운 개들이 앵무새를 공격할까봐 걱정돼 그녀는 엉덩이를 조금 움직여 뒤쪽으로 앉았다. 선선한 바람이 맨살을 내놓은 팔뚝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물 흐르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다.

“너도 바깥 구경이 하고 싶지?”

그녀는 천천히 이동장의 잠금쇠를 풀었다. 아직 날 줄 모르지만 놀랄 만한 상황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날아가버릴 수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어 그녀는 그때까지 새를 한 번도 바깥에서 꺼낸 적이 없었다. 앵무새를 목련 송이처럼, 조금만 힘을 주면 망가지는 봄날의 목련 송이처럼, 두 손 가득 조심스럽게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자 새가 그녀의 웃웃 속으로 파고들었다. 처음 나와본 세상이 무섭다고 멀리멀리 날아가는 대신, 그녀의 품속으로.

“아이고, 간지럽잖아.”

너무 간지러워 웃음이 났다. 한번 터지자 웃음이 계속, 계속 나왔다. 똑같이 연하늘색 원피스를 맞춰 입은 여자아이 둘이 발레를 하듯 빙글빙글 춤을 추며 지나가다가 빼이익- 하는 새 울음 소리에 앵무새를 발견하고는 언니, 이거 봐, 앵무새야, 하며 그

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아이들은 앵무새를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갔다. 아주 환한 밤,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약간 더 큰 여자아이 뒤를 대롱대롱 매달리듯 걷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역시 그녀가 할머니네에서 살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그冬에는 배수 시설이 좋지 않아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곤 했다. 비가 쏟아지면 할머니와 백모가 허둥지둥 빨래를 걷고 평상에 널어둔 시래기와 무말랭이 같은 것들을 걷었다. 이때금씩 대청마루까지 흙탕물이 차면 그녀보다 아홉 살이 많은 사촌언니가 그녀를 업었다. 언니 등에 업혀 그녀가 언니 무서워, 하면 언니는 그녀를 업은 채 뚝뚝뚝뚝 노래를 불렀다. 마을을 집어삼킬 듯 차오르는 흙탕물이 무섭다가도 언니 등에 업혀 노래를 듣고 있으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었을까. 앵무새를 품은 채, 환한 달이 하천 위로 기다랗고 빛나는 띠를 그려놓은 걸 보며 그녀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뚝뚝뚝뚝 뚝뚝새 논에서 울고 앵무앵무 앵무새 밭에서 울지. 천변을 따라 우거진 달 뿌리풀의 은빛 물결이 바람이 불 때마다 찰랑거렸다. 하천 건너편의 침대 아이들이 맨다리를 물가 쪽으로 내놓은 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그녀와 앵무새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앵무새가 화답하듯이 고개를 내밀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앵무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자,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가 진공청소기로 바닥에 떨어진 곡물 껍질을 빨아들인 후 콩국수를 해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사위의 목소리는 밝았다.

“장모님, 드디어 데리러 갈 수 있어요.”

앵무새가 갔다. 그녀는 일상을 되찾았다. 월요일엔 동네 슈퍼에서 채소를 샀고, 수요일엔 평생교육원에 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후엔 결명자차를 끓이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다 본 후에는 가스 불을 끄고 잤다. 모든 게 변함없었지만 그녀는 천변에는 한동안 나가지 못했다. 천변의 모든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무더위가 꺾이고, 태풍이 한차례 몰려오더니 일교차가 커지고, 나뭇잎들은 시들어갔다. 딸과 사위는 날 수 있게 된 앵무새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따금씩 그녀에게 보내주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라디오를 들으며 대청소를 하던 그녀가 서랍장 안쪽에 서 수필 쓰기 수업에 들고 다니던 노트와 강의 계획서를 발견한 것은 긴 시간이 흐른 후 어느 겨울의 일이었다. 내다버릴 것들을 한데 모으다가 그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노트를 펼쳐보았다. 갈피에 끼여 있던 아주 작은 연노란빛 솜털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져내렸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앵무새를 생각했고, 또 조금 더 많이 생각했다. 그

러다 새벽 세시쯤 되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다. 그리고 미처 버리지 못한 노트를 꺼내어 식탁 앞으로 갔다. 커튼을 치지 않은 거실 유리창 너머로 고요함이 감도는 먹빛이 가득 들어찬 게 보였다. 마른바람이 가늘어진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이 들렸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빈 페이지를 펼쳤다. 무언가 쓰고 싶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강사는 수업시간에 그렇게 말하곤 했다. 글을 쓰기 위해선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지, 너무 무서워.

그녀는 식탁에 앉아 앵무새, 라고 써봤다. 앵무새가 왔다, 라고 쓰려다 가버렸다, 고 썼다. 앵무새가 가버렸다, 는 문장을 보자 너무 고통스러워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다. 눈을 감자 주위가 캄캄해졌다. 어두운 강물 속처럼.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 물풀을 헤치는 사람처럼 눈을 감은 채 기억들 사이를 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빼꼼 그녀를 바라보던 앵무새, 어깨에 올려놓으면 가만히 앉아 그녀와 같이 연속극을 보며 그녀의 목에 보드라운 부리를 비비던 앵무새,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 그녀가 양동이 가득 물을 담아 뒤뚱뒤뚱 걸어가면 그 뒤를 총총총, 발소리를 내며 따라오던 작고 작은 새가 아직 그녀에게 있던 시절로. 사람들은 알까. 잠이 들면 앵무새의 그 조그마한 발이 더 따뜻해잔다는 걸. 그녀 옆에서 졸던 앵무새가 잠에서 깨어나 저만치 가버린 뒤, 그녀가 주름진 손을 펼쳐 새가 앉았던 자리를 가만히 만져본 적이 있었다. 마

룻바닥은 새가 닿았던 자리만큼의 크기로 따스했다. 그리고 보면 그 시절, 그녀에게는 틀림없이 앵무새가 전부였다. 앵무새에게도 그녀가 전부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작지만 분명한 놀라움이 그녀의 늙고 지친 몸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번져나갔다. 수없이 많은 것을 잃어온 그녀에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니. 사람들은 기어코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 데 나이를 먹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